수출 호조 속 광주 수출 비중 '한 자릿 수' 머물러

이용빈 의원 국감 지적…광주 수출액 증가율 20% 전국 평균 못미쳐
수출기업 국비 지원 수도권 편중…광주 2%·전남 1.6% 지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로 지난해 수출 호조를 맞았지만 광주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역 수출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수출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도권으로 편중되며 지역 수출 실적이 악화하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수출액은 166억달러(23조6000억원)로, 전년 실적(138억달러)보다 20.6%(28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수출액은 271억달러에서 428억달러로, 58.0%(157억달러) 뛰었다.

지난해 전국 수출액 증가율은 25.7%(5125억달러→6444억달러)로, 광주 증가율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7대 특·광역시 평균 증가율 27.0%와는 격차를 더 벌렸다.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32.4%)과 부산(30.9%) 등은 30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광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 수출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광주 수출액은 122억달러로, 전국(4675억달러)의 2.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광주 수출액 비중은 2019년 2.5%, 2020년 2.7% 등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광주 수출 성장세가 더딘 가운데 수입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광주 수입액은 80억달러로 전년(65억달러)보다 24.6%(16억달러) 늘었다.

지역 기업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수출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올해 수출지원 정부 예산은 광주에 고작 2%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광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광주 수출기업들에 지원된 사업예산은 32억77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1623억3600만원이 지원됐지만 광주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이는 공업도시 울산(1.1%)을 제외하고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이다.

전남 수출지원 비중은 1.6%(25억7100만원)으로, 역시 제주(0.7%)를 빼고 9개 도(道) 중 가장 적었다.

광주와 전남을 합해도 수출지원 예산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서울(28.7%)과 경기(28.2%), 인천(5.2%) 등 수도권 비중은 62.1%에 달했다.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은 구매 담당자(바이어)를 발굴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수출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과 '수출 컨소시엄'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브랜드K 육성관리' 등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정책자금 대출 수요가 높지만 광주는 '수출 기업화'를 위한 신시장지출지원자금 융자 비중도 2.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수출 정책자금 융자금액은 99억8000만원으로, 전체(4377억3500만원·43개사)의 2.3%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전남 대출금액은 140억2000만원으로, 3.2% 비율을 나타냈다.

이용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주무부처 차원의 수출지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수출지원 규모마저도 지역은 전국 대비 최하위에 머무르는 현실을 산업부와 중기부는 엄중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균형발전 없이 지역경제 침체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두면 지역 소외를 더 부채질할 것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균형발전 역주행을 즉각 멈추고 지역별 수출 투자·내수 활로 방안에 대해 파격적 대책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I 유입 차단하라"…전남농협, 철새도래지 주변 방역 강화

농협 전남지역본부 박서홍(왼쪽) 본부장과 강진완도축협 김영래 조합장 등이 18일 강진군 도암면의 철새도래지인 만덕호를 찾아 AI 발생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소독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

18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남·광주 18개 축협에서 상시 운영 중인 101개 반의 가축 공동방제단이 특별 방역에 나섰다.

내년 2월까지인 특별방역 기간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 19곳과 가금사육 농장 진출입로 도로에 소독액을 살포한다.

바이러스 제거와 감염원의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에 중점을 두고 소독하고 있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4% 증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보다 15일 일찍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발견되는 등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박서홍 본부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며 "농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철저한 소독을 해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기준금리 1%p 오르면 은행 잔액 예대금리차 0.25%p 확대

변동금리 대출 증가 원인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예금·대출)금리차는 약 0.25%포인트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잔액 예대금리차 확대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분기~2022년 1분기 13개 일반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잔액 예대금리차는 0.245%포인트 커졌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0.207%포인트 줄었다.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은 변동금리 조건이고 예금의 경우 절반 이상이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예금 등 금리가 낮은 '저원가성'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잔액 예대금리차가 벌어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취급액의 경우 현시점의 은행 간 대출 경쟁, 대출 태도, 규제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잔액 기준과 달리 예대금리차 산출 식에서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예금 저원가성 예금이 빠지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확대를 부추겼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55% 내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20년 4분기 말 63.5%에서 올해 2분기 말 70.3%로 늘었고,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68.0%에서 82.6%로 뛰었다.

아울러 장기적 분석 결과와 달리 작년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까지 커진 것은, 은행 간 경쟁이 줄고 총량규제 등으로 대출 태도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유철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고정금리 확대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리가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재해 농가 원금 상환 유예

다음 달 말까지 신청 접수
피해율 따라 임차료 감면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구매했거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해당 사업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 회생 농지매입사업, 과원 규모화 사업 등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이상저온이나 집중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로, 피해율이 30% 이상 돼야 한다.

농지를 산 농업인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는 피해율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농지를 빌린 임대농은 임차료를 감면해준다.

피해 농민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 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피해 확인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환급이나 감면 혜택을 준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피해를 본 730농가에 임대료 감면 등 35억4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강경학 부사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화(1577-7770)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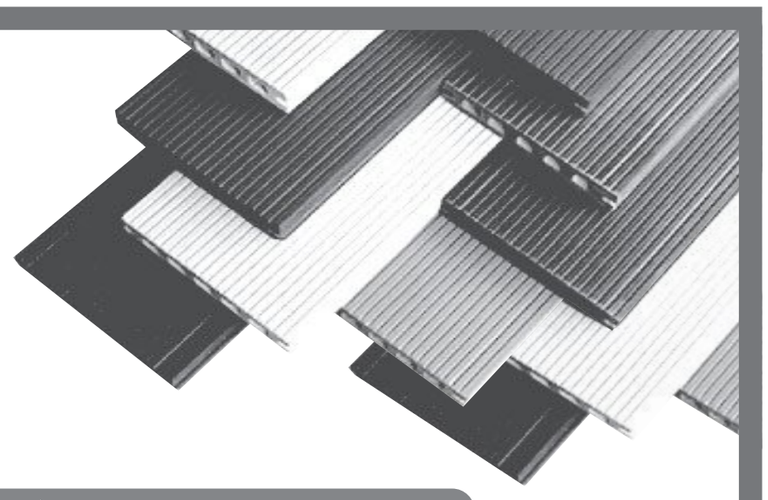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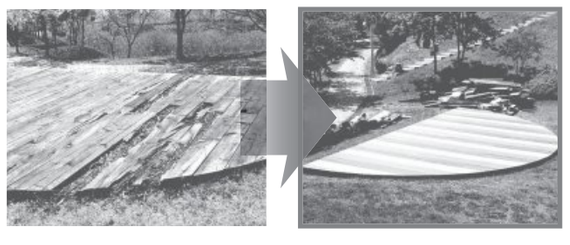
사학연금, 임산부의 날 행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최근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맞아 나주시와 함께 17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열었다. 시립합창단 태교 음악회를 시작으로 기념식, 환영 행사,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홍보관과 사진 촬영 공간 등도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학연금 임직원들은 지역 임산부에 기념품을 나눠줬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